http://hanzhong.idi.re.kr/

한중 Zine

최신 중국 동향

vol.94 2012.10.08

목 차

1. 중국 부호 순위 : 와하하 그룹 1위
2. 은행업 총자산 124.5조 위안
3. 민간자본발전 완화 및 투자방식 변화
4. 행복감 조사 : 대도시 시민 행복감 낮아

작 성 : **김지선 연구원**(jisun13@idi.re.kr)

인천발전연구원
Incheon Development Institute

1. 경제 중국 부호 순위 : 와하하 그룹 1위

o 후룬연구원(胡润研究院)이 발표한 2012년 '후룬부호순위(胡润百富榜)'에 따르면 상위 1000명의 평균재산은 전년대비 9% 감소한 평균 8억6000만 달러를 기록함.

- 상위 1000명 중 469명의 자산이 감소하였으며, 50%이상 재산이 감소한 부호도 37명에 달함.

o 와하하 그룹(娃哈哈)의 영업수입이 2011년 대비 20% 증가함에 따라 그룹 총수 종칭허우(宗庆后)의 자산은 800억 위안 증가하면서 1위를 재탈환함.

- 2위에 랭크된 완다그룹(万达集团) 대표 왕젠린(王健林)의 재산은 전년대비 44% 증가하여 650억 위안임.

- 3위에는 바이두사(百度公司) 창시자 리옌훙(李彦宏)의 자산은 전년대비 9% 감소한 510억 위안으로 3위에 랭크됨.

- 2011년 부호순위 1위였던 싼이중공업(三一重工) 대표 량원건(梁稳根)은 경제침체로 인해 전년도 자산 700억 위안에서 대폭 감소한 460억 위안으로 5위에 랭크됨.

o 2012년 자산이 감소한 업종은 태양에너지, 의류 및 소매 등으로 이들 부호의 평균 재산은 동기대비 8.5% 하락함.

- 특히 부동산 부문이 크게 쇠퇴하면서 상위 1000위 부호의 업종별 점유비율 중 부동산 부호가 19.8%로 줄면서 제조업(20.1%)에 1위 자리를 내줌.

o 부호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베이징으로, 전년대비 12명 증가한 123명이 베이징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상하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80명의 부호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74명인 선전(深圳)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섬.

【출처: 百富榜469个富人财富缩水 太阳能服装等行业最惨, 北京晨报, 2012-09-25】

2. 금융 은행업 총자산 124.5조 위안

o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(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)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2년 중국 은행업 총자산은 23.7조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6월 124.5조 위안에 달함.

- 그중 5대 상업은행의 자산은 57.1조 위안으로 45.8%를 차지하였으며, 12개 전국 주식제 상업은행과 약 140개 도시 상업은행의 자산은 각각 21.1조 위안과 11.5조 위안으로 점유율 16.9%와 9.2%를 차지함.

o 은행업 총자산 성장률은 2004년 14% 성장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매년 17%이상을 달성함.

- 은행업 총자산은 2007년 50조 위안을 돌파한 53.1조 위안이며, 2011년은 100조 위안을 돌파한 111.5조 위안을 달성함.

o 은행업은 중국 금융업의 핵심으로서, 공상은행(工商银行), 농업은행(农业银行), 중국은행(中国银行), 건설은행(建设银行), 교통은행(交通银行) 등 5대 대형 상업은행이 중국 은행업의 중심임.

- 2003년부터 5대 대형 상업은행은 주식제 개혁, 회사 운영체제 변경, 관리수준 강화, 이윤 및 위험관리 능력의 지속적 제고를 통해 국제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함.

- 현재 글로벌 시가 Top 10에 공상은행 등 중국자본은행 4개가 랭크됨.

o 5대 상업은행의 불량 채권율은 2002년 23%에 달했으나 20012년 6월 0.9%로 감소함.

- 또한 2012년 6월 상업은행의 자기자본율은 12.9%, 지급준비율은 290.2%이며, 2012년 상반기 순이익은 6616억 위안에 달함.

【출처: 银监会 : 银行业快速发展 十年资产增百万亿, 新华社, 2012-09-23】

3. 부동산 민간자본발전 완화 및 투자방식 변화

o 주택 및 도농건설부 정책연구센터(住房和城乡建设部政策研究中心)와 고하이펀드(高和资本)는 제2차 '2012년 민간자본 및 부동산사업연구보고(2012年民间资本与房地产业研究总报告)를 발표함.

- 거시경제 및 현지 지주 산업의 영향으로 원저우(温州), 어얼둬쓰(鄂尔多斯), 산시(山西)와 산베이(陕北) 등 4대 지역의 민간자본 투자액은 전년대비 감소하는 추세임.

- 민간자본의 부동산업 투자는 대체적으로 퇴조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전략 및 방식전환으로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음.

o 현재 민간자본의 부동산 투자는 상업지, 도시종합형, 지방중소 도시의 수요충족형 · 개선형 주택 등 '기회성 투자'로 진행하고 있음.

- 어얼둬쓰 등 기존의 지역에 국한된 민간투자 방식을 베이징 등 외부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또한 활발한 해외부동산투자로 자본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있음.

o 최근 불거진 민간주택대출 위기는 과거의 낙후된 민간대출 방식에서 현대금융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.

- 신탁과 펀드 등 규범화된 방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고리대금, 인적 친소관계를 기반으로 한 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투자 위험을 피할 수 있음.

o 부동산 시장은 자생적으로 상업형 부동산발전의 절정기를 맞게 되었으며 또한 건물임대 비율증가는 장기자금에 대한 수요를 제고시킴.

- 이러한 환경아래 신형금융의 생존 및 발전은 신형 금융업 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음.

【출처: 民间资本发展放缓 投资楼市模式渐变, 经济观察网, 2012-09-24】

4. 사회 행복감 조사 : 대도시 시민 행복감 낮아

o 중허생명보험유한공사(中荷人寿保险有限公司)와 베이징대학사회조사연구센터(北京大学社会调查研究中心)가 발표한 '중국 도시주민 행복감 및 생명보험 수요 연구보고서(中国城市居民幸福感暨寿险需求研究报告)'에 따르면 조사대상 도시민의 51.6%가 '행복하다'고 응답하였으며, '아주 행복하다'에 22.5%가 응답함.

- 또한 상대적인 행복감에 대하여 50%가 '자신은 중간수준'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8%는 '자신은 대다수 사람보다 행복하다'라고 응답함.

o 행복감 조사는 중국 대·중·소 도시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, 가장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시민이 가장 많은 지역은 1위 랴오닝성(辽宁省), 2위 텐진(天津) 및 산둥성(山东省)으로 조사됨.

- 랴오닝성 주민은 '미래에 대한 불확실성'과 '사회보장능력' 부분에서 기타 도시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음.

- 2위 링크된 텐진은 노인과 아이 즉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.

- 동시에, 베이징과 상하이는 생활비, 물가수준, 취업, 사회발전과 사회보장능력 등 낮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아, 대도시 시민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o 비록 20개 도시주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지역별로 확연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
- 전통적 저축으로, 자신의 건강 및 미래 양로, 자녀 교육을 보장할 수 없어 많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남.

【출처: 一线城市成幸福低估, 中国经济导报 , 2012-09-20】